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도 곳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

무 용 학 과

원 필 녀

1992년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년 12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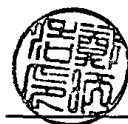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무용학과 원 필 녀

원필녀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정 병 호



審査委員

주 영 라



李 輔 亨



李 叔 仁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目 次

論文概要

I. 서 論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방법과 절차	4
II. 제주도 굿의 개요	6
A. 제주도 굿의 종류	6
B. 제주도 굿의 무구와 무복	10
C. 제주도 굿의 제단과 굿판	14
D. 제주도 굿의 제의적 절차	16
III. 제주도 굿에서의 예능적 형식	21
A. 무악(무속 음악)	21
B. 제주도 굿의 춤	25
C. 제주도 굿 춤의 특징	29
IV. 제주도 굿에서의 춤의 구성	30
V.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사위	34
VI. 결 論	75
참고문헌	77
영문초록	79

論 文 概 要

무속은 한국 민속 예술의 뿌리라 말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무속 실제적으로 민속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한 예술장르로서 발전하도록 기여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고립되어 있는 제주도의 굿을 대상으로, 무용학적 측면에서 제주도 굿에 나타난 무무를 연구하였다.

먼저는 제주도 굿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들은 풍과오례, 계절의례, 예축의례, 치병의례, 생산의례, 그리고 건축의례에 따른 제주도 굿의 종류들, 굿의 무구와 무복, 제단과 굿판의 구성, 그리고 굿의 제의적 절차에 관한 것들이다.

둘째는 제주도 굿이 갖는 예능적 형식을 보았다. 즉 무악으로서 장구, 징(울징), 북(울북), 설쇠(울쇠)와 무악 장단인 낮은 언물, 중판, 잣은 언물과, 신칼들고 추는 춤을 비롯한 24 가지 형태의 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 굿춤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제주도 굿에서의 춤의 구성을 보았다. 특별히 제주도 굿 중 1만 8천 신이라는 무속의 모든 신을 청해 모셔서 소원을 비는 제차인 초감제를 통하여 제주도 굿이 갖는 춤의 구성을 보았다.

네째로는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사위를 살펴 보았다. 특별히 춤의 한 단계 마다 사진을 수록하고 그에 따른 발 스텝과 몸 동작, 그리고 음악 장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제주도 굿에는 예능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춤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적인 면으로 단순성, 연극성, 그리고 상징성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 굿춤에도 정형화된 구성이 있음과, 마지막으로 제주도 굿에는 독특한 춤사위가 형성화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I. 서론

A. 연구의 목적

오늘날 한국의 춤은 세계의 춤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가 독특한 예술 문화로서 세계인들에게 소개되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춤은 그 종류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춤은 세계의 춤이 됨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전통의 아름다운 춤들을 발굴하여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여 성격과 특징들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되어 지는데, 그것들은 궁중을 중심으로 전수되어 온 궁중 무, 민중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민속무, 그리고 특별한 직능인인 무당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무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춤들은 한국인들의 삶의 정서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한국의 춤을 구성하는 춤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연구가치를 갖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무당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오는 역사적 무무를 들 수 있다. 분명 무당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무무는 긴 역사를 통하여 한국 전통 춤의 한 영역을 형성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무는 신과 인간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는 숭고한 행위로서 종교적 춤으로서 성격을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그 무무는 지역마다 춤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만아니라 무당이 행하는 곳의 내용

*. 춤의 발생학 설에는 2 가지 학설이 있다. 그것은 본능설과 모방설이다. 본능설이란 비형식적, 비체계적 형식의 인간 감정에서 연유되어 나타난다는 설이다. 이 본능설은 원시시대의 무용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현대의 창작되는 예술의 춤을 설명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모방설이란 인간이 무엇인가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데서 무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의 춤과 동물의 춤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설도 현대의 창작 예술로서의 춤을 설명할 수 없다. (송수남외 2명 「무용원론」, 서울. pp 12-13.

1. 정병호, 「무속예술의 지역적 양태와 특성」, 창론(8집), 중대예술연구소, 1989, p. 28.

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무가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한국 무의 유형²⁾은 무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무당과 신이 일체가 되어 행해지는 무이며, 둘째는 무당과 신이 구분이 되어 행해지는 무이다. 전자의 경우는 무당이 신접하여 가무로 굿을 주관하며 신의 영력에 의하여 점을 치고 예언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무의 유형 중에 무당형에 해당하며, 지역으로는 중부와 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예컨대 무당형에는 무당과 박수가 있으며, 「칠성할멈」, 「법사」 등으로 호칭되는 선무당류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무당이 신접을 하지 못하고 무의 세습권만 계승하여 제도화된 것이다. 이러한 무의 형태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한 「단골형」과 제주도의 「심방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무무는 무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먼저는 신접에 의하여 행해지는 무무가 되며³⁾, 다음으로는 혈통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도화된 세습무가 된다⁴⁾.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 성격에 따라 무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무는 무당의 창작에 의한 것이 아닌 신의 내림에 의한 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 한국 무의 유형은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들은 무당형, 단골형, 심방형, 그리고 명두형이다. 첫째로 무당형은 神柄으로부터 연유하여 된 무당으로서 가무로 굿을 주관하고 영역에 의해 예언과 점을 친다. 특별히 중부와 북부에 분포하고 있다. 둘째로 단골형은 가계를 통하여 사제권만 제도적으로 계승된 인위적 세습무이다. 이 단골형은 신의 영역이 없는 제도화된 무이며,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에 분포한다. 셋째로 심방형은 단골형처럼 무의 사제권만이 가계를 따라 계승되는 세습무이다. 이 심방형은 단골형과 같이 무의 제도화된 면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영력을 중시하여 신에 대한 신관이 확립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형은 주로 제주도에만 나타난다. 넷째로 명두형은 인간 죽은 영의 접신체험을 통하여 된 무의 형태이다. 체험된 죽은 영은 혈연관계가 있는 어린 아이가 죽은 영으로 대개 7세 미만의 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6세 전 후의 영들도 있다. 명두형의 특징은 몸에 실린 죽은 어린이의 영을 자가의 신단에 모시고 필요할 때에 이 영을 불러내어 영계와 미래사를 심화시켜 점을 치는 것이다. 명두형은 중부와 북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김인회외,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82. pp.35-38.

3. 앞글, pp.2-94.

4. 앞글, pp.94-96.

후자의 경우에는 무무의 형태가 단일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 무무는 인위적으로 계승되어 제도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무무는 어떠한가? 이것이 본 논문의 관심사이다. 즉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한국무속에 관한 연구 속에서 한 분야인 춤에 관한 문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주도의 굿에 나타난 춤을 관찰하기 위한 제주도 굿의 일반적인 요소들은 어떠한가?

둘째로 제주도의 굿에서 찾을 수 있는 예능적 형식은 무엇인가?

셋째로 제주도의 굿에 나타난 춤의 구성은 어떠한가?

넷째로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사위의 특징은 어떠한가?

본 논문은 제주도 심방들에 의해 제도화된 제주도의 굿에 나타난 춤을 현상 그대로 분석해보고, 이것이 한국의 춤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5. 한국 무속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무용분야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무속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정신과 문화를 찾아내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무속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최남선, 이능화, 신채호, 손보태, 송석하를 들 수 있다. 최남선은 「부성문화론」(1928), 「삼국유사해제」(1930) 등을 통해 주변 민족들의 원시종교와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무교의 성격과 그 위치를 밝히려 했고, 이능화는 「조선무속사」(1927)을 통하여 무속의 역사, 제도, 성격과 의식, 국내 각 지방의 무와 중국 및 일본의 무등을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연구하였으며, 손보태는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 샤머니즘이란 무엇인가?」(1927), 「조선지배민족의 원시신앙연구」(1928)등을 통하여 무속과 관련되는 신앙 풍속을 연구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선 무속에 관한 연구는 1945년 이전까지는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발전되었으나 한 민족의 역사적 시련으로 새로운 발전 과정을 갖게 되었다. 즉 민족문화 연구에 별 진전이 없었던 침체기(1946~1960), 학문적 발전 준비기(1960년대 초), 학문적 발전초기(1960년대 중.후반), 학문적 전환기(1970년대), 그리고 학문적 성황기(1980년대)로 성숙되어 왔다.(김인회외, 같은책, pp.15 -25)

지 연구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가설로서 “제주도는 지리 문화적 특수한 상황속에서 심방들을 통하여 독특한 제주도의 굿춤을 계승 발전하여 왔다.”라고 설정한다.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주도에 굿에 나타난 춤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의 춤의 형식과 오늘날의 춤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역사적 접근방법, 제주도의 굿춤과 다른 지방의 굿춤의 양식들을 비교하는 비교적 접근방법, 그리고 제주도의 굿춤만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연구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으로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방법이란 한마디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연구방법이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형태에 대한 역사적 선입관을 배제한다. 또한 다른 지역의 형태에 대한 타문화적 선입관도 배제한다. 그리고 춤에 대한 어떤 이론도 배제한다. 현상학적 방법은 오직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객관적 이해에 따라 정리할 뿐이다.

제주도 굿춤의 연구에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제주도만이 갖는 춤의 예술 형식을 찾기 위함이며, 둘째는 제주도 굿춤이 갖는 체계화된 춤의 구성과 춤사위를 보기 위함이고, 세째는 제주도 굿춤이 다른 지역의 굿춤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속에서의 그 위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제주도 굿춤의 배경이 되는 제주도 굿에 대한 일반 개요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제주도 굿의 독특한 예술형식인 춤의 특징을, 제 4장에서는 굿춤에서 나타나는 도식화 된 일반적인 춤의 구성형태를, 제 4장에서는 제주도 심방들에 의하여 전수되어 온 춤사위의 형태를, 그리고 제 6

장에서는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제주도 굿춤으로 정하며, 시간적으로는 91년도에 시행된 굿에 한정한다. 그리고 자료의 범위로 문서 자료와, 현장 조사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므로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변모해 가는 굿춤의 형태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로서 제주도 굿춤의 발전과정의 한 순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제주도 굿의 개요

본 장에서는 제주도 굿만이 갖고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들로는 제주도 굿의 종류, 무구와 장식품, 무복, 제단과 굿판, 그리고 제의적 절차를 들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다음 장들에서 제주도 굿춤에 관한 제 문제들에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굿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 제주도 굿의 종류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굿의 종류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주도의 굿은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들은 통과의례, 계절의례, 예측의례, 치병의례, 생산의례, 그리고 건축의례에 따라 분류된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통과의례에 따른 굿

통과의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 과정을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과정에 따라 인정하고 공동체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과의례에 따른 굿의 종류는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1) 불도맞이

불도맞이는 한마디로 기자의례(祈子儀禮)이다. 불도는 불교적 명칭으로서 산신(産神)을 지칭한다. 따라서 불도맞이는 산신을 청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고, 단산, 무병 양육을 기원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⁶⁾

6. 玄容駿(1986), 「제주도 무속연구」, 서울:집문당, p.234.

2) 귀양풀이

귀양풀이는 장례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사자공양제이다. 이것은 사자가 심방의 입을 빌어 심정을 말하는 ‘영개울림’을 한 후 차사에게 사자를 저승까지 고이 데려가 주도록 비는 것이다.⁷⁾

3) 시왕맞이

시왕맞이는 사자공양제의 하나로서 사후 3년 이내에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승의 시왕과 차사등을 청하여 죽은 자의 왕생극락을 빌고, 죽은 자의 심정을 듣는 ‘영개울림’을 하며, 저승에의 길을 치워 닦아 죽은 자를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의례이다.⁸⁾

4)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바다에서 익사하여 죽은 자의 무혼(撫魂)과 풍어(豐魚)를 비는 의례이다.⁹⁾ 용왕은 바다의 신이다. 그러므로 무혼굿은 심방이 익사자의 혼 부르기를 하여 시체를 육지로 돌려보내 주도록 비는 것이며, 풍어굿은 요왕을 청하여 풍어를 비는 것이다.

0

2. 계절의례에 따른 굿

굿은 계절에 따라 행하여지는데, 그 종류로는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1) 불뚫제

불뚫제는 신년 벽사초복, 화마(火魔)를 쫓아 버리는 의례이다. 특히 화재가 진압된 후에 행하는 의례로서 화재의 발생으로부터 소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모의적으로 실연하고, 화마의 퇴산(退散)화재를 만나 넘어 이탈한 사람들의 ‘넘들임’행사 등을 중심으로 행한다.

7. 玄容駿(1980), 「제주도 민속 資料사전」, 서울:新丘文化社, p.12.

8. 김태곤(1991), 「한국민속연구」 서울:집문당, p.123.

9. 현용준(1986), 「제주도무속연구」 p.238.

2) 문전비념

문전비념은 신년 벽사초복을 위한 의례이다.

3) 문전철갈이

문전철갈이는 신년 벽사초복을 위한 의례이다.

4) 멩감

멩감은 신년 벽사초복과 풍농을 위한 의례이다.

5) 산신멩감

산신멩감은 신년 벽사초복과 풍수를 위한 의례이다.¹⁰⁾

3. 예축 의례에 따른 곳

1) 칠성제

예축 의례를 위한 것으로는 칠성제가 있다. 이것은 충신인 칠성이 아니라 복두칠성원군을 위하는 의례이다. 복두칠성군은 인간에게 장수와 복을 주신 신이라 하며, 특히 어떤 사람들은 '칠성태운 사람'이라 하여 이 복두칠성의 수호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한 해에 한번 칠성제를 하여 수복을 비는 의례이다.¹¹⁾

4. 치병 의례에 따른 곳

제주도 곳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치병 의례를 들 수 있다. 이 치병의례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¹²⁾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넋들임

넋들임 곳은 넋이 육체에서 빠져 나감으로 해서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의

10.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p.12.

11. (1986), 「제주도무속연구」 p.238.

12. 앞글, p.236-237.

레이다. 즉 심방이 빠져나간 뼉을 불러서 육체속에 들여넣어 병을 고치는 행위이다.

2) 푸다시

푸다시 굿은 잡귀가 범접하여 앓은 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다.

3) 두린굿

두린굿은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다. 무속에서 정신 이상이 생긴 것은 원영이나 신이 범접한 때문이라고 이 굿을 하여 고친다.

4) 영감놀이

영감놀이는 도깨비신이 범접하여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다. 여기서 영감이란 도깨비의 명칭이다. 이 의례는 치병 의례로서 행할 뿐만 아니라 어선을 새로지어 선왕(船神)의 모셔 앉힐 경우나 부락신에 대한 당굿으로도 행해진다.

5) 칠성새남

이것은 '칠성'이라는 뱀을 죽인 때문에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다. '칠성'은 북두칠원성군의 약칭으로 쓰이기도하고, 충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의례는 후자에 대한 것으로서 뱀을 죽인 자가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을 언곡으로 실현하고, 죽은 뱀을 살려내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생산 의례에 따른 굿

제주도인들은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굿을 하였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두고 신 앞에 경건한 의례를 준비했다.¹³⁾ 이에 관련된 굿은 네 종류로 나타난다.

13. 앞글, p.234.

1)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바다 신인 요왕에게 청하여 그 해의 풍어를 비는 의례이다. 이 의례는 제주도인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으므로 마을단위로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2) 땡감풀이

땡감풀이는 농사 대풍을 위한 것이다. 즉 그것은 신년초에 가내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모든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3) 산신놀이

산신놀이는 수렵의 풍요를 비는 의례이다. 여기서 신방은 여러 신을 청하여 생업의 풍요를 빈 후, 수렵의 모의 행위를 극적으로 연출한다.

4) 거무영청굿

거무영청굿은 백정 집안에서 도살업의 번창을 위하여 행하는 의례이다.

6. 건축 의례에 따른 굿

1) 성주풀이

성주풀이는 집을 신축했을 때 하는 건축의례이다. 이것은 건축에 쓰인 재목의 나무신을 쫓아내고 가택신을 모셔 앉히는 의례이다.

B. 제주도 굿의 무구와 무복

앞 절에서는 제주도 굿의 종류들을 그 성격에 따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굿을 집행하는 심방이 사용하는 무구와 무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1. 무구

무구는 심방이 굿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무구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무구로서 여섯 가지 종류를 살펴 본다.

1) 신칼(또는 명두칼)

신칼의 길이는 20센치 내외의 가느다란 낫쇠 칼날에 60센치 내외의 한지 끈을 달은 한 쌍을 말한다. 칼날은 서 있지 않고 가무 사제시에도 쓰고, 잡 혼을 찢어서 구대하는 시늉도 한다. 한지끈을 쥐고 네 던진 두 칼날의 모양으로 점을 치고, 그것으로 신의를 알고 소원주에게 해석, 설명, 전달을 한다.

2) 산판

산판은 「잔대」에 두개의 「상잔」과 두 개의 「천문」을 합해서 ‘산판’이라고 한다. 상잔은 상구경 4센치 내외의 낫쇠잔 두 개를 말하며, 잔대는 직경 10센치 내외의 소형 낫쇠 쟁반 한 개를 말한다. 그리고 천문은 실물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직경 6센치 내외의 엽전형 두 개에게 「천지대문」역에 「천지일월」이라고 음각한것은 두 개를 말한다. 산판은 오로지 점구로 쓰이며, 그 점은 「산판점」이라고 한다.

3) 요탕

요탕은 낫쇠로 된 한 개의 방울이다. 소의 목에 다는 방울^{b)} 같으며, 그 하구경 6 센치 내외의 전형에 불알이 달려서 소리를 낸다. 전형위에 약 40 센치 길이의 천을 결속시키고 그 천을 잡고 흔든다. 이 방울 소리는 조성의 문을 열고 신을 초청하는 시늉을 할 때에 울리는 청신구(請神具)이다.

4) 바람

바람은 「바라」를 말한다. 바람은 접시형의 양단을 합쳐서 친다. 원래 악기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본토에서는 제역거리등 불교적인 색채의 곳거리에서 사용된다. 소원을 비는 사람의 소원이 끝났을 때에는 그것을 앞으로 내던져서 그 옆어지거나 재쳐지는 방향으로 신의를 판단하게 된다.

14장수근(1990), 「제주도 무속」 서울: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p.32.

15. 앞글, p.33.

16. 앞글, p.33-34.

17. 앞글, p.35-36.

5) 감상기

감상기는 보통신을 청하여 안내하는데 사용한다. 감상기는 대나무의 맨 윗부분 잎사귀가 달린 곳을 90센치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른 대나무에 지전을 오려서 잎사귀 밑에 매달아 사용하는데 지전오리는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길쭉히게 오린다.

6) 영기 문기

영기 문기도 감상기와 같은 모양인데 지전의 모양이 시왕을 맞는 기는 직사각형의 지전 가로 윗부분에 대나무를 얹게 갈아서 지전을 말아 붙이고 밑부분을 사람 다리 모양으로 오린 것이다. 그리고 맹감을 맞이하는 기는 시왕 기와 같은데 지전의 형태가 직사각형에서 윗 부분이 둥근 것이며, 밑부분은 여자 머리를 두 갈래로 갈라 땀 것 같은 형태로 오린 것이다. 이 영기 문기는 제일 높은 신을 청하여 안내하는데 사용한다.

2. 무복(巫服)

제의 무복에는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관디차림」, 「군복차림」, 「두루막이차림」, 「평복차림」, 「도포차림」, 그리고 「특수복차림」¹⁸⁾이다.

1) 관디차림

관디차림은 심방의 정장으로서 수심방만이 차리는 복장이다. 차림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두루막이를 입은 후 그 위에 꽤자를 입고 다시 관디를 덧입는다. 꽤자의 색은 청색 또는 적색인데 전대라고 하는 띠(보통 황색)를 가슴 부위에 묶고 그 띠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긴천을 묶어 길게 늘어 뜨린다. 관디의 색은 홍색이며, 흑색의 술띠를 가슴 부위에 묶어 등뒤로 늘어 뜨린다. 머리에는 남자의 경우 탕건을 쓰고 갓을 쓰며, 여자인 경우에는 붉은 색 또는 황색 띠를 머리에 묶어 맨다.

18. 앞글, p.36.

2) 군복차림

군복차림은 두루마이 위에 왜자를 입고 피를 가슴 부분에 두르고 목 부분으로 목거리 수건이라는 천을 걸어 가슴 부분의 피에 묶어서 앞에 늘어뜨린 복장이다. 머리에는 송락을 쓴다.¹⁹⁾ 송락은 한지를 접어서 만든 것으로 종이 쓰는 모자를 딴 것이다.

3) 두루마이 차림

두루마이 차림은 보통 두루마이와 같은 것이다. 이 차림은 보통 작은 곳에서 사용되고, 큰 곳에서는 신을 모시는 경우에 사용한다.²⁰⁾

4) 평복차림

평복차림은 평상시 입던 옷을 단정히 차려 입는 것인데 한 두 시간 내의 간단한 비념 때에 사용한다.²¹⁾

5) 도복차림

도복차림은 옛 선비들의 옷이지만 단일신을 모시고 소원하는 작은 곳, 불도맞이 칠성제 등에 사용한다.²²⁾

6) 특수복 차림

특수복 차림은 때로 ²³⁾굿 내용이 연극적일때 입는 옷이다. 이 때에 본풀이의 내용에 따라서 배역을하고, 그 역에 따라서 복장을 하게된다. 이러한 복장은 영감놀이 때 영감신으로 분장한 차림을 대표할 수 있다. 심방은 갓양태만 붙은 파립을 쓰고, 옷깃만 겨우 붙은 베도포를 입으며, 총만 붙은 떨어진 미투리를 신고서 한 뺨도 못되는 곰방대를 물고 가면을 쓴다.

19. 앞글, p.36.

20. 앞글, p.37.

21. 앞글, p.37.

22. 앞글,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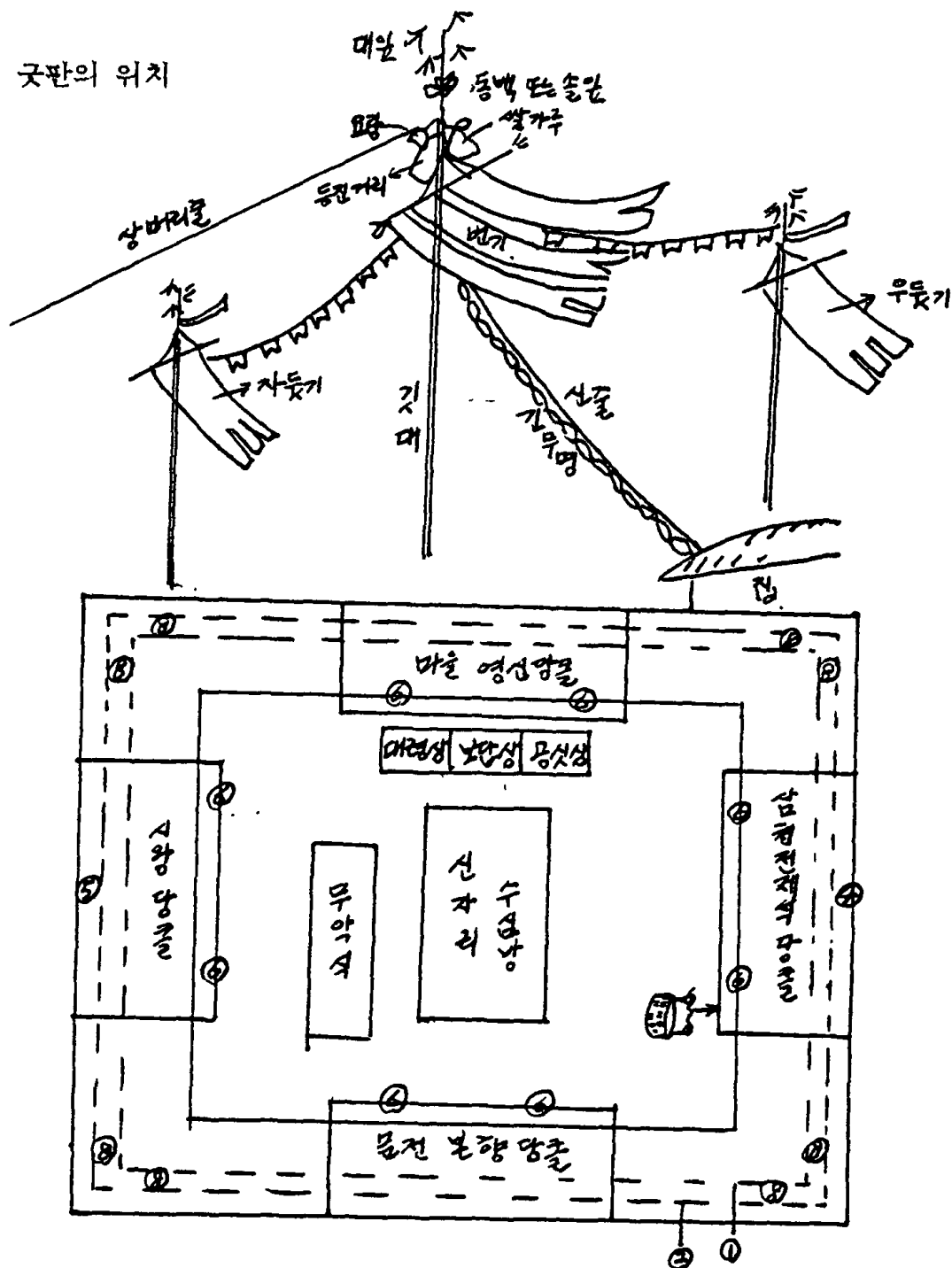
23. 앞글, p.37-38.

C. 제주도의 굿판과 제단

1. 굿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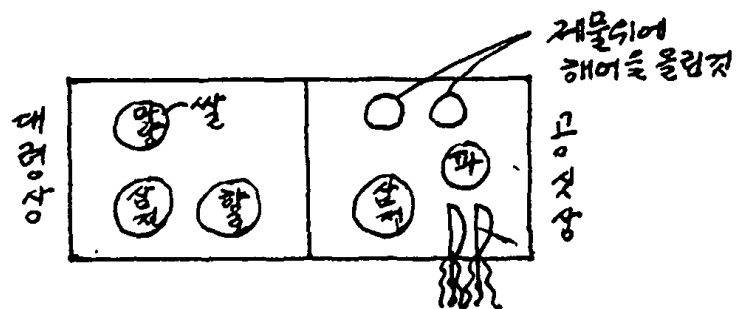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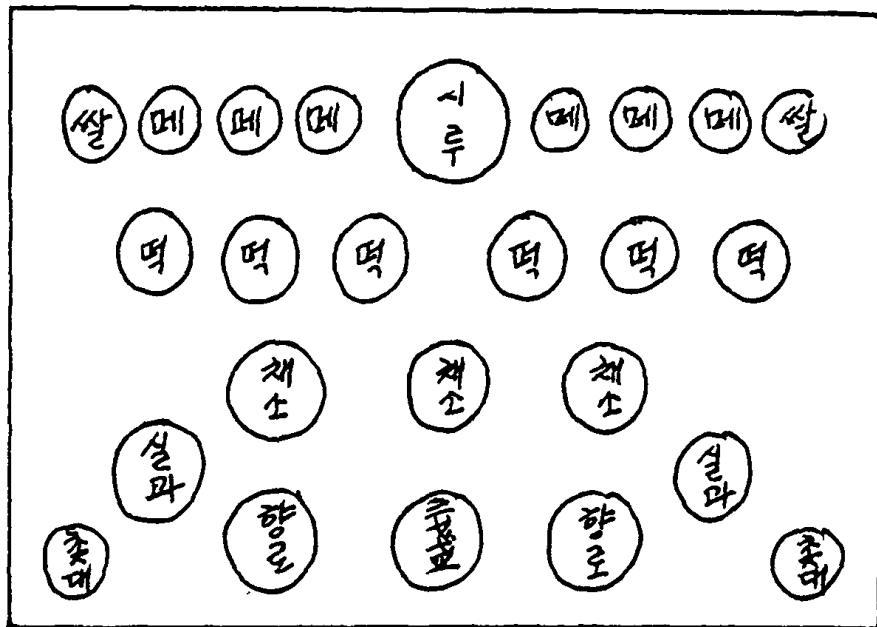
굿에서 정렬된 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제주도의 굿판을 상세히 살펴본다. 굿판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각 위치에 따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굿판의 위치



2) 굿판 위치의 내용

- a. 책지 - 이것은 접선과 같이 줄을 매고 백지를 두 개로 잡은 「책지」라는 것을 연이어 붙여 걸어 놓는다
- b. 살장 - 이것은 같이 줄을 매고 백장으로 「살장을 연이어 붙여 걸어 놓는다.
- c. 연줄신줄 - 이것은 긴 무명을 매어 방 사면에 두른 것이다.
- d. 살전지를 걸쳐 놓는다.- 이것은 백지 또는 색지를 오려만든 기류이다.
- e. 시왕기를 걸쳐 놓는다. - 이것은 창호지 두 매를 붙여 만든 기류이다.
- f. 당반지를 연줄신줄에 달아맨 것 - 이것은 백지 혹은 색지로 만든 기류이다.
- g. 세경상 - 이것은 농신의 제초인 채통인데 표의 삼천전계석중 당클 밑에 달아맨 것이다.
- h. 줄전기를 줄에 매어 달아맨 것.- 이것은 백지 혹은 색지로 만든 기류이다.

2. 제단²⁴⁾

D. 제주곳의 제의적 절차

1. 초감제

수심방이 젓상 앞에서 사배를 하고,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며 무

24. 현용준, (1980),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p.31.

가를 부르면서 집행해 간다. 그 순서는 우주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산수국토의 형성, 인물의 발생과 같은 태초적인 사실의 해설부터 신화적 역사적 해설이 좁혀들어가서 굿하는 장소와 날짜를 고하면서 신령들의 강림을 청한다. 신이 강림하려 하면 먼저 신역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어서 노래와 난무(도랑춤)로써 신역의 문을 연다. 그래서 신이 오는 길의 사를 쫓고 신령을 청하여 젓상에 위계순으로 앉힌다. 이른바 1만 8천 신이라는 무속의 모든 신을 청해 모셔서 수심방이 공손히 네번절하고 나서 노래와 춤으로써 집행해 간다.

2. 초신맞이

초신맞이는 청신의례다. 초감제에서 1만 8천 신을 청하여 앉혔지마는 떨어진 신령이 없도록 또 한번 되풀이 하는 의미의 것이다. 순서와 내용은 초감제와 같다.

3. 초상제

초상제는 초신맞이 때에도 또 떨어진 신령을 위하여 행하는 청신의례로서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이것으로써 일단 청신이 끝이 난다.

4. 추물공언

추물공언은 젓상에 앉힌 신들에게 제물을 잡수도록 소원을 비는 제차이다. 젓상에 올린 제물의 이름을 하나 하나 들면서 잡수도록 권한 후, 소원을 간절히 빌고, 신령의 의지를 신칼점으로 판단한다.

5. 석살림

석살림은 신들을 즐겁게 놀리고 소원을 비는 제차다. 이것은 신들에게 술을 권하고 심방, 제주, 가족들이 모두 춤을 추며, 신과 더불어 즐기면서 기원하는 것이다.

6. 보세감상

보세감상은 신들에게 폐백과 증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제차이다. 이것은 무명을 폐백으로 하여 신들에게 바치고 소원을 비는 것이다.

7. 불도맞이

불도맞이는 개별 의례로서 맨처음 행하는 의례는 산신에 대한 기자의례다. 마당에 불도맞이 젓상을 차려 먼저 초감제부터 행하는데, 그것은 첫머리에 행한 초감제와 같은 것이다. 다만 다른점은 첫머리의 초감제에서는 여러신경을 모두 청해드리는데 대하여 여기서는 산신과 그 권속의 신만을 청해 들이는 차이가 있을 뿐, 신을 청해 들어 공안하고 기원한다고 하는 형식은 전부 같다.

이러한 초감제를 끝내면 '수륙침'이라고 하여 심방이 중의 복장을 하여 기자하는 불교적 색채의 기자의례를 하고, 다음에 '질침(道路淸婦)의 뜻'이라 하여 산신이 래감(來監)하는 길을 치워 닦아 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를 한다. 이 신맞이가 끝나면 산신의 생명의 꽃(呪花)을 훔쳐와서 제주(祭主)에게 주어 낙태하게 하는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의례를 하고, 이어서 소지를 올려서 기원한다.

8. 일월맞이

일월맞이는 산신의 제상을 정리하고 같은 장소에 일월맞이 젓상을 차려서 행한다. 일월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이다. 그 제차는 기자의 행사가 없어질뿐 초감제를 한 후, 질침을 하여 신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형식은 불도맞이와 같다.

9.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는 무조신 초공의 신화를 노래하고, 그 신화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소원을 들어 주도록 기원하는 제차이다.

10. 초공맞이

초공맞이는 무조신을 맞아들어 기원하는 의례로서 위의 일월맞이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11. 이공본풀이

이공본풀이는 사천꽃밭의 주화(생명을 살려내는 꽃 등)를 관장하는 신인 이공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12. 이공맞이

이공맞이는 이공신을맞아들여 기원하는 의례로 위의 초공맞이와 같은 형식으로 행한다.

13. 삼공본풀이

삼공본풀이는 '진상'을 차지한 신인 삼공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14. 젓상계

젓상계는 재차 떨어진 신을 청해 들이는 의례이다. 보통 삼공본풀이까지 하면 첫째날 밤이 깊어서 일단 굿은 중단되고, 다음날에 시왕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날 아침에 시왕맞이를 하기 전에 이젓상계를 한다.

15. 시왕맞이

시왕맞이는 마당에 시왕. 차사. 사자 등의 젓상을 차려서 행한다. 저승을 차지한 시왕과 그 사자인 차사를 맞아들여 기원하고 죽은영을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이다. 이 의례에는 시왕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외에 차사의 신화를 노래하고, 원혼을 달래고, 사자의 영개물림과 진혼을 하고, 액막이를 하는등, 여러가지 의례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으나, 이 부차적인 의례를 제외하면 형식은 다른 맞이굿과 같다.

16.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는 농축신 세경의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17. 삼공맞이

삼공맞이는 '전상'을 차지한 신인 삼공을 맞이하여 그 신으로 하여금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연극적 의례이다. 이것을 '전상놀이'라고도 한다.

18. 세경놀이

세경이란 농신을 이르는 말이다. 이 무의는 밭을 갈아 조 씨를 뿌리고, 그 조가 자라 이삭이 여물어 거두어 들이고, 창고에 저장하는 과정을 연극적으로 실연하는 의례이다.

19. 문전본풀이

문전본풀이는 문신의 신화를 노래하고 가네 안전을 비는 의례다. 초공본풀이와 같은 형식으로 노래불러진다.

20. 본향다리

본향다리는 부락 수호신인 본향당신을 맞아들여 기원하는 의례이다. 형식은 초감제와 거의같다.

21. 각도비념

각도비념은 부엌의 ‘조왕’ ‘고팡의 칠성’ 집터를 지키는 오방토신, 집의 출입로의 신인 주목지신등 울타리 안의 여러부분을 차지한 신들에게 각각 기원하는 의례이다.

22. 말놀이

말놀이는 여러 신들이 타고 돌아갈 말을 몰아다 태우는 의미의 의례이다. 근태에는 이제차가 없어져 행하지는 않는다.

23. 도진

도진은 소위 1만 8천 신을 모두 보내는 의례이다. 이것은 신들의 위계순으로 신명을 부르면서 돌아가십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24. 가수리

가수리는 신들이 돌아간 후 아직 남아있는 각종의 잡귀를 대접해 보내는 의례이다.

I. 제주도 굿에서의 예술적 형식

A. 무악

제주도의 무속음악은 극히 단순한 무악인 것으로 이렇다할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악장이나 장단 용어따위도 전혀 전래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오히려 특징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속의 제식에는 반듯이 무악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무악은 비록 율여적 음악은 아니지만 오랜 관습과 손맛은 열련도로 인하여 제식과 일치되고 제식의의를 더욱 높이는 열림음악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 무악이 타지역의 무악에 비하여 소박하고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 놓인 제주무악은 이렇다할 교류가 없는 가운데 원시적 단순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무악이 그다지 필요없는 본풀이 송가가제식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악이 발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제주도민의 정서 생활이 한정되고 있어서 무악도 이같은 정서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무악 장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국무악의 기본장단이 되는 <덩더 궁>장단의 변화형인것 같다. 그리고 제주도 무악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듬이 질>할 때의 음조와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흥청거리는 가락을 무악에다 도입시켜 흥을 돋구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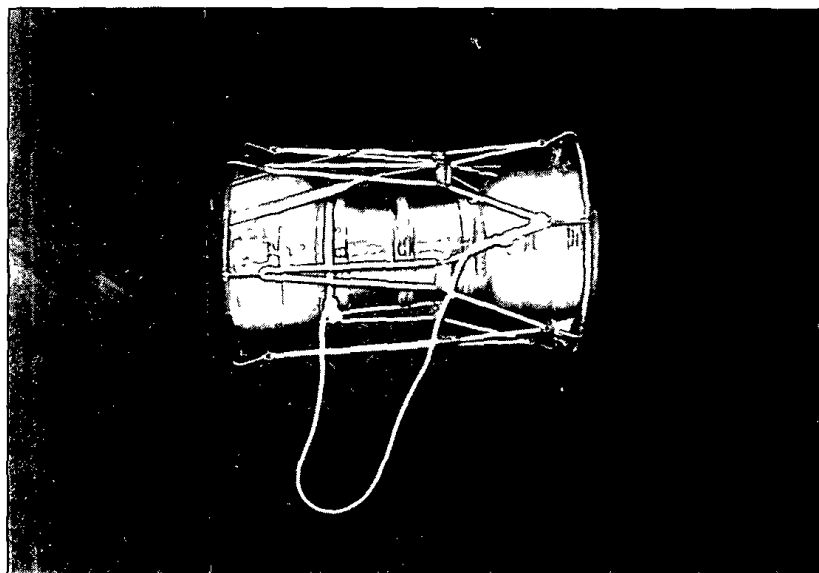
제주도의 무악 가락은 일반적으로 빠른 템포의 것이며, 살풀이 또는 굿걸이와 같은 느릿느릿한 가락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악기는 장구, 징, 팽가리, 북, 바라 등 타악기만이 쓰이고 경기 충청, 전라도, 무속악에서 보이는 피리,젓대,해금같은 정물악기는 쓰이지 않는다. 무의식에서 타악기만을 쓰는 지역은 제주도 외에 동해안 지방,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방이 있다. 징, 장구, 북, 팽가리를 「연물」이라 하고, 이 네 가지 종류를 모두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가진연물」이라 한다.

1. 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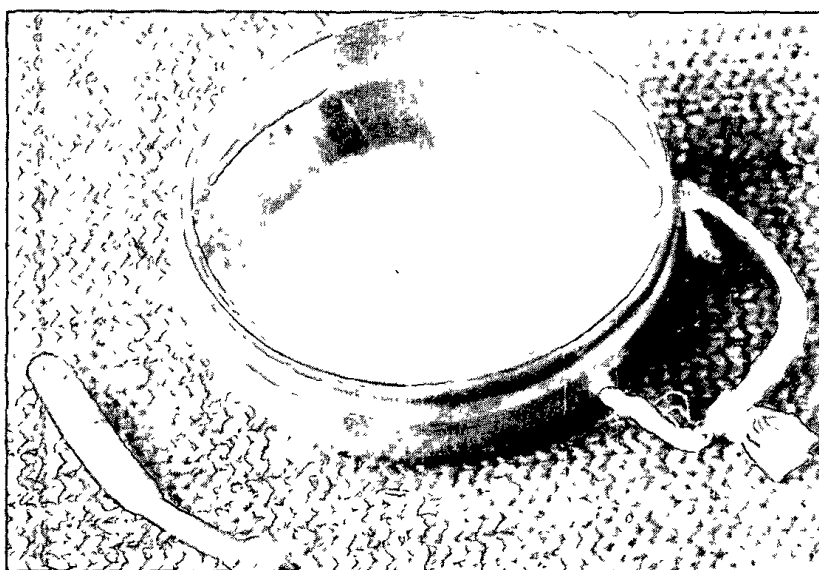
장구는 두 개의 큰통을 가지는 조롱목으로 연결한 통 양편의 쇠테에 가죽을 맨 굴레를 대고, 끈으로 서로 엮어매고 가죽으로된 부전(축수)으로 조

여 패게 되었다. 고변의 직경이 30센치 내외 통의 길이는 45센치 내외의 것으로 이것을 메이 포개고 테를 한데 모아 얹으면 부피가 축소되어 운반에 간편하게 되었다. 오른손에는 가늘고 긴 대나무로 만든 열채를 쥐고, 오른편 굴레를 치며 변죽을 치지 않는다.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왼편굴레를 친다. 장구는 부가 반주에서 쓰이며, 부부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징(울징)

징(울징)은 둥근 북으로 만든 대야 모양의 악기이다. 이것은 대양이라고 한다. 징은 직경 32센치 깊이 9센치 정도의 것으로 둘레에는 손으로 들수 있게 22센치 정도의 끈이 붙어 있다.



제주도 곳의 무악 리듬을 '— 언물'하고 어미를 붙인다. 춤의 장단은 3분 박 4박자로 처음에는 느리게, 다음에는 보통빠르게 나중에는 빠르게 친다. 느린 것을 '늦은석' 또는 '늦은 언물'이라고 하고 보통빠르기는 '중판'이라 하면, 빠른 것은 '잣은석' 또는 '잣은 언물'이라 하여 위의 세 가지 장단을 삼석치기라고 한다.

위의 장단을 악보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늦은 언물

M.M = 40 - 50

2. 중판

M.M = 85 - 100

3. 잣은 연물

M.M = 160 - 180

설쇠

울징

울북

B. 제주도 굿의 춤

제주도 굿의 춤은 많은 종류의 춤이 있다. 이러한 춤은 일반적으로 가제 굿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1. 신칼들고 추는 춤

신칼들고 추는 춤은 어느 굿이나 신칼이 있다. 이 춤은 청신을 비롯하여 오신(娛神), 송신(送神), 그리고 점술적인 기능을 가진 춤이다.

2. 낙하실떡을 들고 추는 춤

낙하실떡을 들고 추는 춤은 낙하실이 떡 놀이라 한다. 이 춤은 차사를 청해서 오신하거나 오락적 희극놀이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3. 감상기들고 추는 춤

감상기들고 추는 춤은 어느 곳에서나 청신행위로 추어지는 것이며, 특히 군문 열때 예술적으로 추어진다.

4. 술잔들고 추는 춤

술잔들고 추는 춤은 대체로 어떠한 곳에서나 추어지는 것으로 주로 청신과 축원적 오신무의 기능을 가진다.

5. 시왕맹감령기를 들고 추는 춤

시왕맹감령기를 들고 추는 춤은 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을 열때 추어진다. 그런데 춤은 잡혼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전투적 행위로 축혼무를 겸하고 있다.

6. 향로를 들고 추는 춤

향로를 들고 추는 춤은 향로를 들고 신을 따라오게 한 다음 신이 오르면 그 신을 오신하는 춤을 춘다. 이 춤은 청신무와 오신무적 기능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

7. 할마니 다리를 들고 추는 춤

할마니 다리를 들고 추는 춤은 「무지개춤」이라고도 하는데, 이 춤은 「불도맞이굿」에서 할머니신을 방으로 영접할때 흰천을 들고 흔들어 오신하는 춤을 추는 것이다.

8. 철죽대를 들고 추는 춤

철죽대를 들고 추는 춤은 「불도맞이」에서 나온 춤으로 몽둥이를 들고 불도 할머니의 흉내를 내는 연극성이 짙은 춤이다.

9. 가지랭이(바라)를 들고 추는 춤

가지랭이(바라)를 들고 추는 춤은 바라를 아름답게 치면서 불도 할머니들을 오신시키는 목적으로 추어진다. 그런데 이 춤은 불교의식 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0. 군웅치마 걸치고 추는 춤

군웅치마 걸치고 추는 춤은 조상들을 청하여 오신하는 행위로 추어진다.

11. 물그릇을 들고 추는 춤

물그릇을 들고 추는 춤은 굿을 할때 신을 청하기 전에 추는 것으로 부정
을 없애기 위해 추는 것이다.

12. 도끼를 들고 추는 춤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은 「성주풀이」할 때 강태공이 수목수를 청하여 나무
를 베게하는 것에서 추어진 일종의 노동무라 하겠다.

13. 파비<농기구>를 들고 추는 춤

파비(농기구)를 들고 추는 춤은 길닦음할 때 길을 청소한다는 뜻으로 추
어진다. 따라서 이 춤은 일종의 노동무라 할 수 있다.

14. 작대기를 들고 추는 춤

작대기를 들고 추는 춤은 길닦음할때 잡초를 치우는 춤이다. 이 춤도 노
동무용이라 하겠다.

15. 광관새 들고 추는 춤

광관새 들고 추는 춤은 길닦음 할때 추는 춤으로 풀을 땅에 까는 시늉을
하는 노동무용이다.

16. 삼판을 들고 추는 춤

삼판을 들고 추는 춤은 어느 거리에서나 나오는 춤으로 점치는 기능을 가
진 춤이라 할 수 있다.

17. 나부다리를 들고 추는 춤

나부다리를 들고 추는 춤은 종이로 나비를 작게 만들어 그것을 여러개 가
지고 오신행위로 춤추다가 마지막에는 그 나비를 방생한다는 뜻으로 공중으
로 던져버린다. 따라서 이 춤은 오신티무라할 수 있다.

18. 술병을 들고 추는 춤

술병을 들고 추는 춤은 당의 500신을 청하여 청해 드릴 때 추는 춤으로
먼저신을 청하여 음복케 하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게 되는데, 이때 그
릇을 틀어주지 않으면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러한 춤을 오신티무적 성격을 가

진 춤이다.

19. 신칼과 쌀을 들고 추는 춤

신칼과 쌀을 들고 추는 춤은 신칼로 부정을 씻게하고 쌀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춤을 추므로써 1만 8천 신이 사방에서 굿정으로 모이도록 하기위해 추는 것이다. 이러한 춤은 축혼무인 동시에 청신무라 할 수 있다.

20. 가면을 쓰고 햇불을 들고 추는 춤

가면을 쓰고 햇불을 들고 추는 춤은 서낭풀이를 할때, 굿패들이 가면을 쓰고 햇불을 들고 서낭영감을 청신하여 청신무로 춘다.

21. 동백꽃을 들고 추는 춤

동백꽃을 들고 추는 춤은 「불도맞이 굿」에서 나온 춤으로 물그릇을 머리에 이고, 동백꽃을 들고, 서천꽃밭에 물을 주는 이른바 생산의례적 내용을 담고있는 축원적인 춤이다.

22. 악심꽃을 들고 추는 춤

악심꽃을 들고 추는 춤은 「불도맞이 굿」에서 나온 춤으로 대나무 잎과 잡초를 가지고 축혼을 목적으로 춘다.

23. 아기를 업고 추는 춤

아기를 업고 추는 춤은 옷감을 속에 넣어 아기 옷을 입히고 그것을 등에 업고 아기의 일상생활을 시늉하는 춤을 춘다. 이 춤은 토산신을 오신하는 목적으로 춘다고 한다. 이 춤은 생산의례적 축원무로서 오신적 기능을 가졌다.

24. 식칼을 들고 추는 춤

식칼을 들고 추는 춤은 「거무영창놀이」에서 나온 춤으로 두 사람이 대립하여 식칼꼭지에 떡과 고기, 과일 등을 꽂고 거무영청신을 오신하는 춤이다.

C. 제주도 굿춤의 특징

주된 춤사위는 감장도는 춤과 신맞이, 어깨메고 뿌림등이며, 이춤사위가 종합된 춤을 도랑춤이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술적 의식성을 갖춘 이지방의 특징이 되었다.

연극적이고 전투적인 거치른 난무가 많으며, 춤의 구조는 원초적이다.

춤은 먼저 사설을 하고 추는 것이며, 질치기할때는 많은춤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 처럼 청신을 비롯하여 오신, 송신, 축혼 등의 기능을 가진 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노동무용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춤꾼은 주로 남자가 한다는 것과 주술적이 강한 상징적 동작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대를 양손에 쥐고 그것을 시왕문을 열고 닫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쌀을 사방에 뿌리면서 춤을 추는 것은 사방의 신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기 위한 상징이고, 회무할 때 좌측으로 도는 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며 인는 전회의 상징이라 한다. 또한 신칼을 어깨에 메고 뿌리는 것은 신을 놀리는 행위라 하며, 신맞이 춤은 신을 인도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제주도굿춤에는 연극적 요소가 많이 있다. 질치기춤은 천왕문 지왕문, 인왕문 등 3 가지문을 왕래하면서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는 춤이라 할 수 있고 고대 제천의식의 유풍인 인신의례를 비롯하여 추혼의례, 번종의례, 성장의례, 목호의례와 같은 것이 춤에 나타난다.

제주도 굿춤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그 특징들은 대륙 지역의 굿춤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면으로 들 수 있다. 첫째, 제주도의 굿춤은 춤의 구성과 동작들에 있어서 단순성을 갖고 있다. 둘째로는 굿춤에 연극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술성이 강한 상징적 동작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무무의 춤 동선은 회전에 있으며, 큰 회전 작은 회전 제자리 맴돌기 회전이 춤사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꼭 반복 회전을 할때 한쪽으로 돌다 반대로 역회전 할때의 유연한 반전의 형태가 아주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춤의 특징은 단순한 동작을 규칙적으로 거듭반복 함으로써 주술적인 효과를 고양하는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Ⅳ 제주도 굿에서의 춤의 구성

A. 초감제

초감제는 이른바 1만 8천 신이라는 무속의 모든 신을 청해 모셔서 소원을 비는 제차이다. 수심방이 네 번 절하고 나서 노래와 춤으로써 집행해 간다. 노래는 굿의 집행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한 단락 한 단락씩 불러 가지고 그 단락 사이에 옆에 앉은 소무(小巫)들이 치는 북.설쇠. 징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집행해 간다. 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배포도업침

정장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서서 천지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 인물의 발생 등 지리.역사적 현상의 발생을 차례차례 노래해 간다. 한 단락 한 단락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소무가 치는 북.징.설쇠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신을 청신하는 형식이다. 이 자연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배포친다'고 하고 인문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도업친다'고 한다.

2. 날과 국 섬김

우주 개벽으로부터 시작한 지리. 역사적 설명이 점점 좁혀져서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해 올리는 대목이다. 춤은 없고 앉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3. 집안 연유닭음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이야기한 다음 굿하는 집안의 사유를 이야기하고 신이 내려와 주기를 청한다.

25. 현용준, 이부영(1985). 「제주도 무혼굿」, “한국의 굿-7”, 서울: 열화당.

26.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1986), 문화공보담당관실, p.180.

27. 현용준, 이부영. 같은책. p.81

28. 김수익(1982), 「공간」 10월호, 서울: 공간사. p.39.

4. 군문 돌아보고

신이 하강하는 문 주변에 잡귀가 없는지 알아보는 뜻에서 신칼과 요령을 들고 정신무를 춘다.

5. 초군문에 인정검

신칼과 요령을 올리면서 신을 홀리고 신에 뇌물을 주고 사귀어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해 청신무와 오신무를 춘다.

6. 군문열림

신들이 내려오려면 신역의 문이 열려야 될 것이므로 그 문을 여는 장면을 연출한다. 심방은 감상기와 문기영기를 들고 노래와 춤으로 문을 열고 점을 쳐서 문이 열렸는지 알아보는데, 이때의 춤은 격렬한 춤으로서 그 문이 열림을 표현한다. 이제까지의 춤은 천천히 너울너울 추는 춤이었지만 이 대목에 이르면 점점 템포가 빨라져서 좌우로 팽팽돌고 상하로 뛰고 겨울에도 땀이 솟을 만큼 요란스러운 춤을 춘다. 이춤을 '도랑춤'²⁹⁾이라고 한다.

7. 분부사뵐

도랑춤으로 굿당을 긴장과 흥분속으로 몰아넣은 후 심방은 신칼점, 산판점으로 군문이 잘 열리는가 여부를 점치고, 그 결과를 제주에게 전한다. 이것은 신의 뜻을 전하는 말이므로 제주나 굿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신의 말을 들으려고 모두 숙연해 진다.

8. 부정고개

감상기와 물그릇을 들고 부정을 씻는 춤을 춘다.

9. 새를 다리고

신칼을 가지고 잡귀를 물리치는 전투적인 축혼무를 춘다.

29. 문화재관리국(1987), 「巫舞」, 서울 : 문화재연구소. p.252.

30. 앞글, p.252.

31. 현용준. 이부용, 같은책, p.81.

10. 신청괘

이 곳은 당맞이하는 곳으로 신칼과 쌀을 가지고 춤추면서 쌀을 사방으로 뿌려 신들을 모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청신무이다.

11. 팔만대신경

감상기와 요령을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사방에 있는 여러 신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단쌍기를 하는 청신무를 한다.

12. 정대우

감상기와 요령을 들고 청신무를 한다.

13. 배신키고

얇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14. 방광치고

얇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15. 새나옴

얇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16. 추물공연

얇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17. 도울팁

얇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18. 역가를 바치고

얇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19. 낙하실이 놀립

차사를 즐겁게 놀리기 위해서 떡시루를 공중으로 던지거나 신칼을 가지고 오신무를 한다.

20. 시왕사자 본풀이

얹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21. 액을 막고

얹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22. 차사영맞이

일종의 길닦음으로 여기서는 많은 길치기춤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처음에는 저승지옥문을 돌아보는 춤을 추고 이어서 저승문을 여는 춤, 잡초를 캐는 춤, 길을 고는 춤, 먼지를 쓸어내는 춤, 길에다 물을 뿌리는 춤, 잡초를 길에 깔아 굽게 가꾸는 춤, 사람을 나비로 환생시키는 춤, 말타는 시늉을 하는 춤, 신에게 떡을 청하는 춤, 저승 십이대문을 돌아보는 춤 등을 차례차례로 추어간다. 「차사영맞이」의 춤은 청신오신, 송신, 노동무적 기능을 가진 춤이라 할 수 있다.

23. 영혼차사 본풀이

얹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24. 시왕도진

얹은 장구로 사설만 한다.

V.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사위

제주도 굿의 춤사위는 크게 느린춤인 “궁농춤”, “석시춤”, “서우제소리춤”, “단벌소리춤”, 그리고 빠른춤인 도량춤으로 나뉜다. 무무에는 주로 도량춤에 “감장도는 춤사위”, “신맞이 춤사위”, “모듬 춤사위”, 어깨메고 뿌려내리기 춤사위“, “단쌍기 춤사위“가 있으며, 이것들을 발사위로 구분하여 “감장도는 춤”, “뒷춤”, “앞춤”, “원그리기춤“이라고도 하며 “손가락춤”도 이에 속한다.

1. 감장도는 춤사위

손짓없이 도는 것과 팔을 몸 앞에서 상하로 흔들면서 도는 동작이 있는데, 도는 방법은 왼발을 축으로 하여 오른 발로 조절하면서 돌고, 반대로 오른발이 축이되어 왼발을 조절하면서 제 자리에서 도는 것을 말한다.(그림 1,3,7,10,15,19,31 참고)

2. 신맞이 춤사위(청하는 춤)

신을 청하는 춤으로 공손한 태도로 양손에 신칼을 들고 추는 춤으로 왼손의 신칼의 지전 부분을 오른 쪽 어깨에 던져서 걸치고 오른손의 신칼을 손목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면서 몸을 안쪽으로 돌린다.(그림 2,26 참고)

3. 모듬춤사위

왼발을 벌려두고 두팔을 몸 앞으로 던져 올려 손목을 꺾어 앞으로 뿌리고 벌린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모으고 두손을 모아 고개를 숙여 절을 한다음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뒤로 돌아서면서 모았던 양팔을 편다.(사진 5-1,5-2,16 참고)

4. 단쌍기 춤사위

이 춤사위는 도량춤에 들어 가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하는 춤사위로서 왼쪽에 원을 그리면서 원그리기를 한다.(그림 6,14,24 참고)

5. 팔에 걸치기 춤사위

오른손을 틀어 약간 오른쪽 앞으로 뿌려 펴고, 왼손을 오른손 쪽으로 뿌려000서 신칼을 오른손 팔목에 걸치고, 왼손을 약간 왼손 앞쪽으로 뿌려 펴고, 오른손을 왼손쪽으로 뿌려서 신칼을 왼손 팔목에 걸친다. 이 춤사위는 신을 어르는 행위라 한다.(그림 1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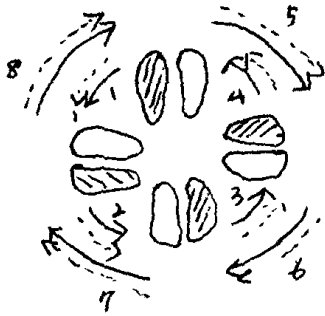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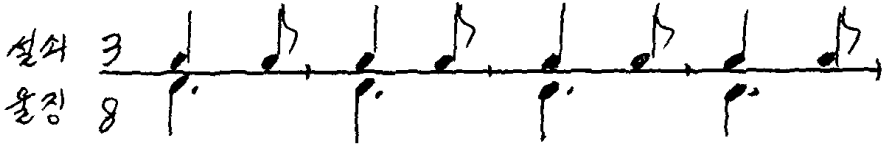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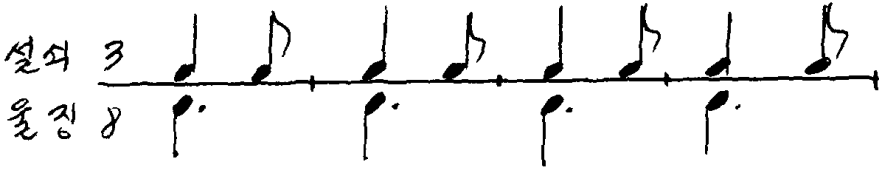
6. 옆으로 뿌려 어깨에 매기 춤사위

양손을 옆위로 휘둘러 내렸다. 어느한 손을 반대쪽 어깨에 멘다. 이러한 동작을 반대 방향 어깨에 매는 동작을 하면서 반복한다.(그림 23,3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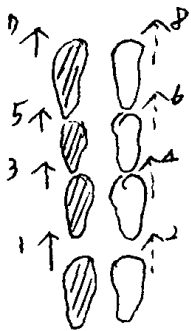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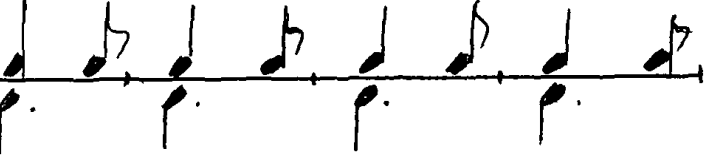
7. 뿌려 어깨에 매고 뿌려 내리기 춤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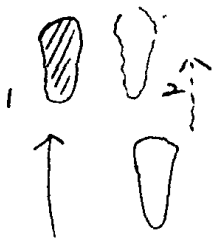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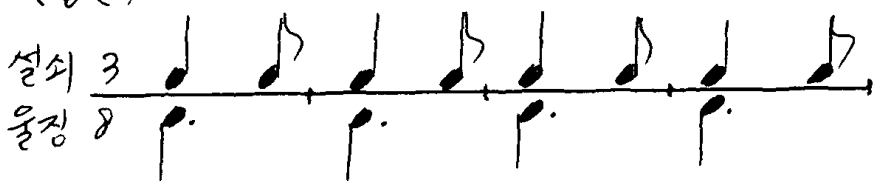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딛는 동시에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붙이고, 손은 오른 손을 위로 뿌려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이어서 앞으로 뿌려 내린다. 왼 발은 왼쪽으로 딛는 동시에 오른발을 왼발 옆에 붙이고, 손은 왼손을 위로 뿌려 왼쪽 어깨에 걸치고, 이어서 앞으로 뿌려 내린다. (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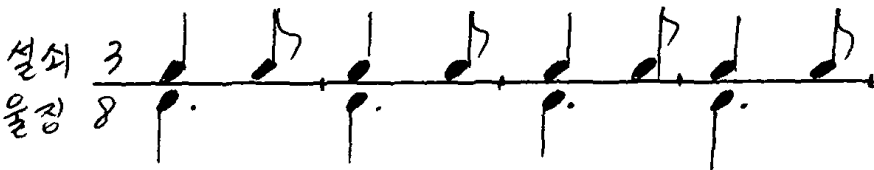
명칭	1.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 늦은 연물 > 설화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정면으로 서서 두팔의 팔굽을 구부려 앞으로 하고 하나의 호흡을 들면서 발굽을 들었다 급힐때 앞으로 들고 있던 팔도 같이 들었다가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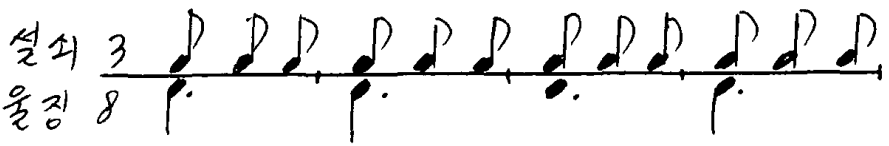
명칭	2. 신맞이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외 3 울징 8 
춤사위설명	왼팔을 오른쪽 어깨 위로 던져 올리면서 왼발을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팔을 밑으로 내려다가 중심이 왼팔로 완전히 이동되고 오른발이 왼팔 앞쪽으로 나갈때 들어 올려 오른발을 옮길때 오른쪽 손목을 밖으로 돌려 뿌리치면서 한바퀴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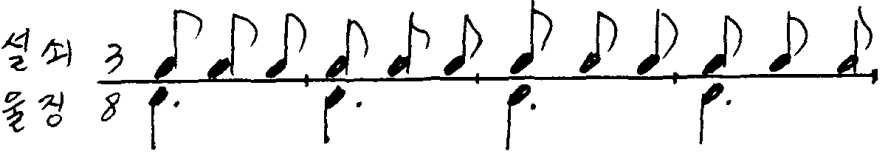
명칭	3.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 중판 > 설악 3 돌 8 
춤사위 설명	오른쪽 어깨에 얻어 놓았던 왼팔을 앞으로 빼고 뒤로 돌렸던 오른쪽 손목을 그대로 앞으로 회전하여 맨 처음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러한 형태를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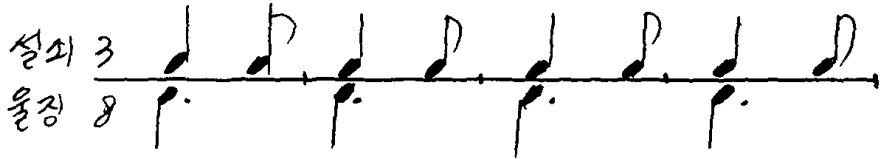
명칭	4. 뿌려 어깨에 메고 뿌려 내리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 중판 > 설외 3 울정 8 
춤사위 설명	왼팔을 왼쪽 어깨에 메고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구부렸다 가슴밖으로 뿌리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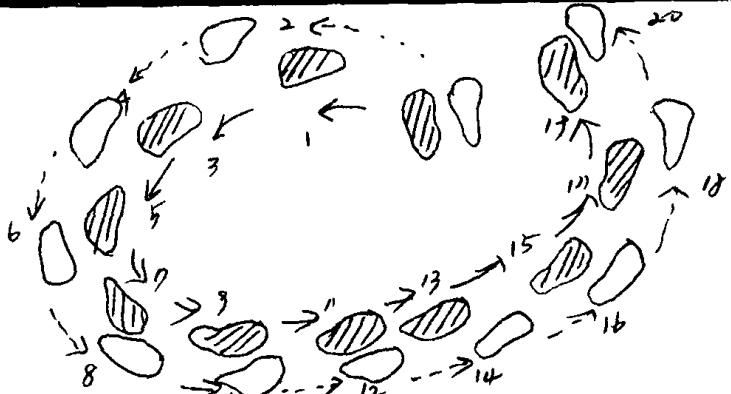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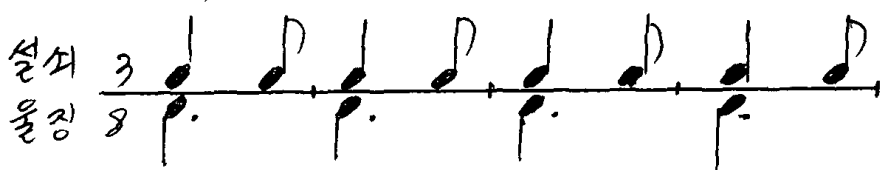
명칭	5-1. 모듬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쇠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앞에 있던 두팔을 앞으로 모아 가슴 밖으로 뿌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두팔을 아래로 내리며 뒷걸음하면서 몸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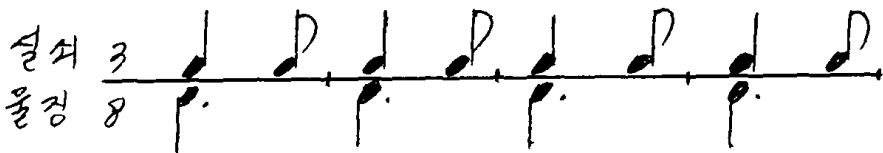
명칭	5-2. 모듬 춤사위
춤 사 위	
발 동 작	
장 단	<중판> 설외 3 울림 8 
춤 사위 설명	뒤로 완전히 회전하면서 앞에 모았던 양팔을 몸 옆으로 퍼 들어서 굽혔던 상체도 정면으로 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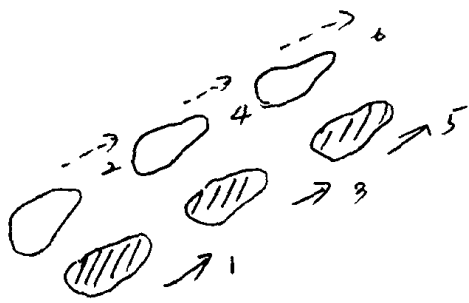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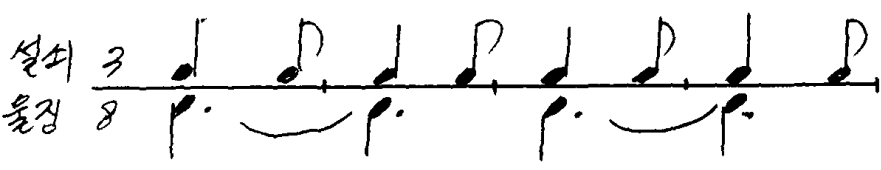
명칭	6. 단 쌓기 춤사위
춤 사 위	
발 동 작	
장 단	<자진예물> 설외 3 울징 8 
춤 사위 설명	원팔을 왼쪽 어깨에 메었다 뿌리고 오른쪽 팔을 오른쪽 어깨에 엮었다 뿌리면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며 한바퀴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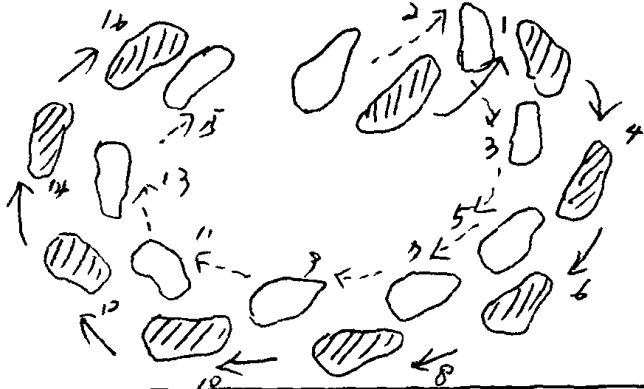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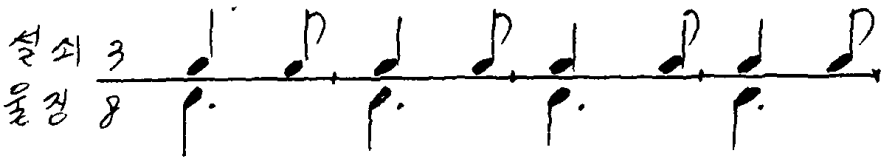
명칭	7.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여물> 설쇠 3 물징 8 
춤사위설명	양팔을 아래로 모아 방향을 잡고 양팔의 팔굽을 굽혀 위로 들고 오른발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에서 맴돈다. 이러한 동작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다 정면에 잠깐멈추는 동시에 왼쪽 손목을 오른쪽 가슴쪽으로 돌려 방향을 바꾸어 왼발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 맴돌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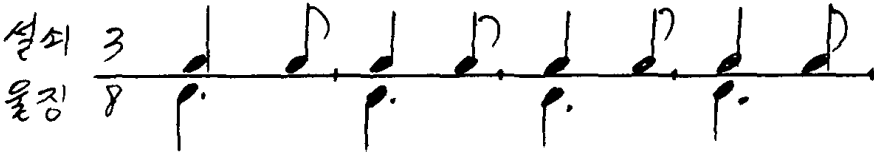
명칭	8. 앞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외 3 울징 8 
춤사위설명	감상기를 양팔에 들고 정면 앞으로 걸어 들어온 다음 왼쪽 사선 뒷방향으로 갔다 다시 앞으로 왔다 오른쪽 사선 뒷 방향으로 갔다 다시 앞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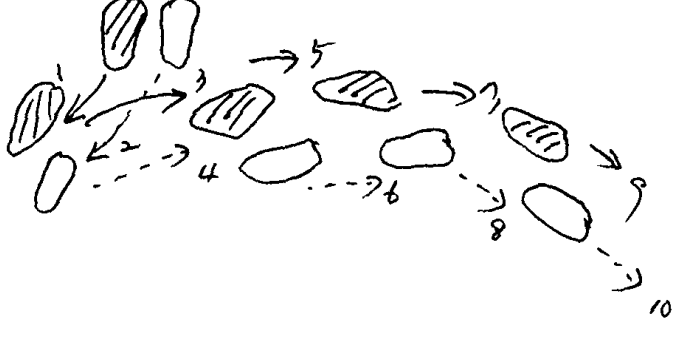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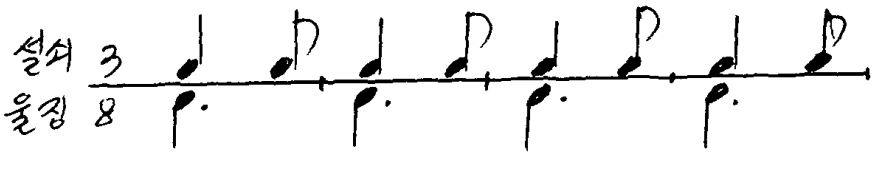
명칭	9. 원그리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쇠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원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맴돌고 오른손을 앞으로 돌려 오른발 축으로 오른쪽으로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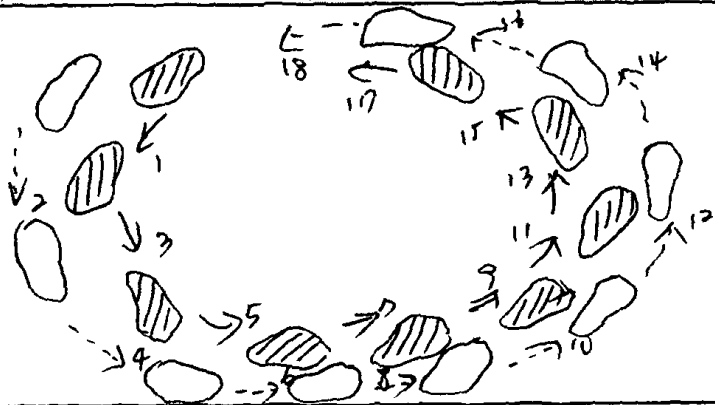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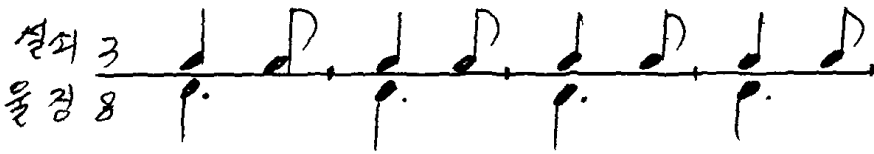
명칭	10.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 중판 > 설쇠 3 물징 8 
춤사위 설명	오른손으로 감상기를 왼손에 든 주발물을 짚어 뿌리며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바퀴돌고 앞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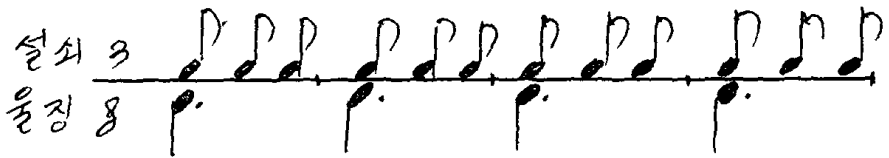
명칭	11. 뒗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뒗문연물> 설쇠 3 뒗짐 8 
춤사위 설명	감상기와 신칼과 요랑을 동시에 쥐고 팔을 아래로 쭉펴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뒤로 뒗걸음질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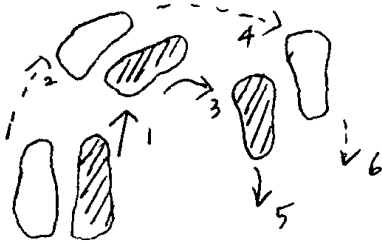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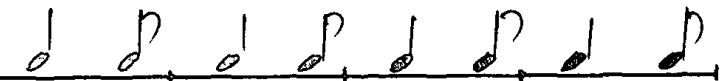
명칭	12-1 원 그리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외 3 물결 8 
춤사위 설명	앞으로 굽혔던 상체를 펴고 아래있던 양팔을 위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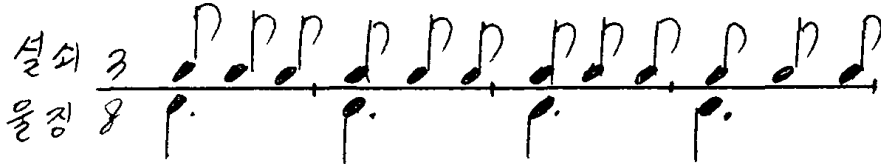
명칭	12-2 원그리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쇠 3 물징 8 
춤사위 설명	양팔을 들고 몸을 왼쪽으로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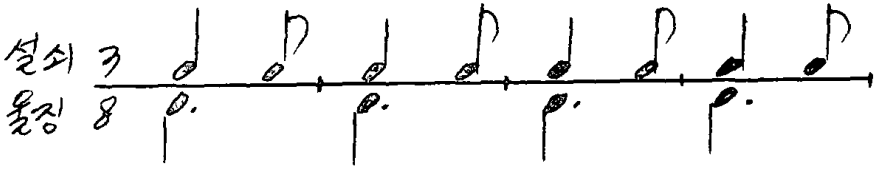
명칭	13. 앞 춤사위
춤 사 위	
발 동 작	
장 단	<중판> 
춤 사위 설명	원발을 왼쪽 사선 뒷방향으로 무릎을 굽혀 빼면서 손목을 돌려 왼쪽 가슴앞으로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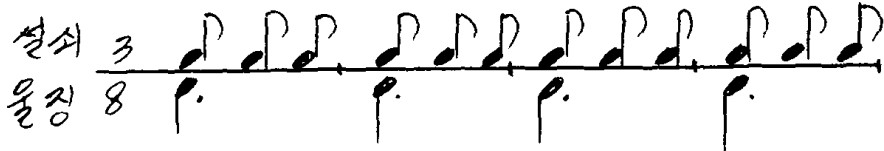
명칭	14. 단 쌀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환> 설외 3 물금 8 
춤사위설명	왼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고 왼팔이 아래로 내려오며 손에는 감상기가 아래로 쳐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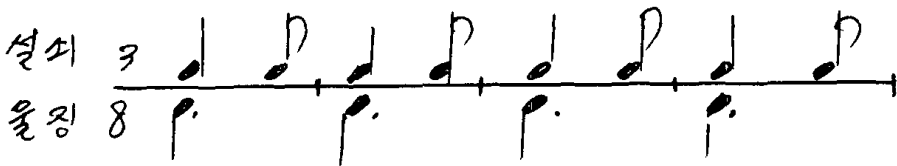
명칭	15.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건연불> 설외 3 물짐 8 
춤사위설명	양팔을 위로하고 왼발을 축으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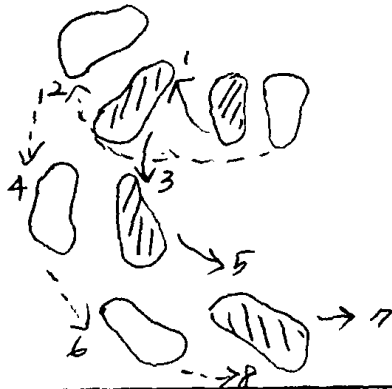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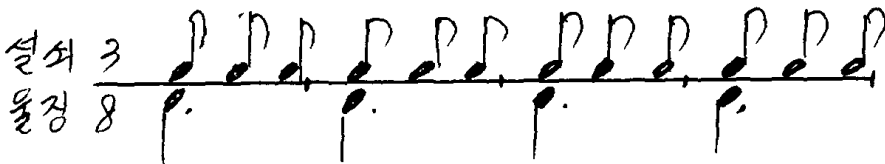
명칭	16. 모듬 춤사위
춤 사 위	
발 동 작	
장 단	< 중판 > 설외 3  물짐 8 
춤 사위 설명	두 발을 모으고 양팔도 앞으로 모으면서 상체를 구부려 뒷걸음하여 몸을 돌리면서 양팔을 옆으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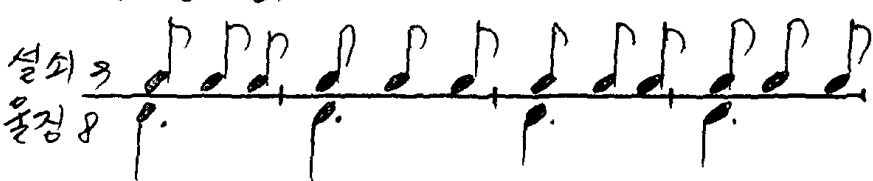
명칭	17. 어르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발동작 없음
장단	<자진연물> 설쇠 3 물징 8 
춤사위 설명	정면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양팔굽치를 바닥에 대고 손에 든것이 위로 향하게 하여 몸을 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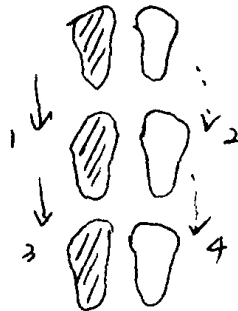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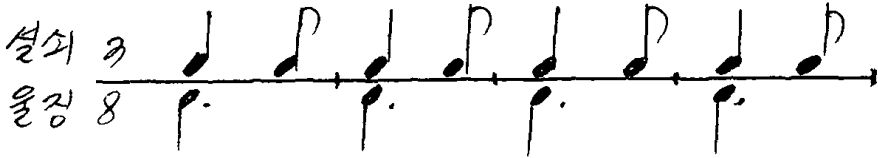
명칭	18. 팔에 걸치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외 3 물징 8 
춤사위 설명	왼쪽으로 돌때 왼쪽을 오른쪽 어깨에 뿌려둘러 올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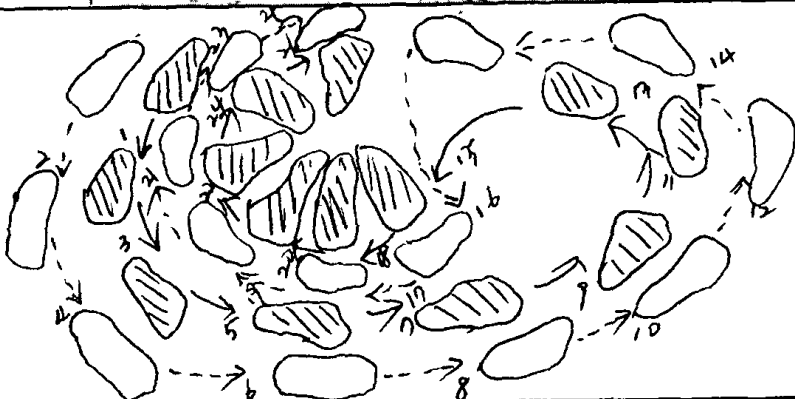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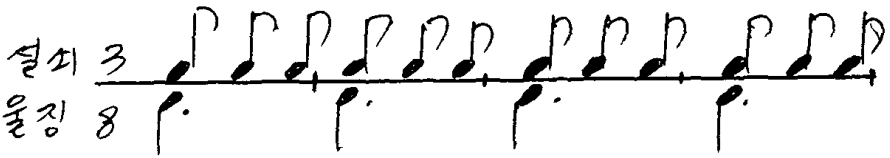
명칭	19. 갑장도논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여물> 설쇠 3 물징 8 
춤사위 설명	왼쪽어깨 걸쳤던 것을 앞으로 빼면서 오른손으로 지전부분을 쥐고 시계방향으로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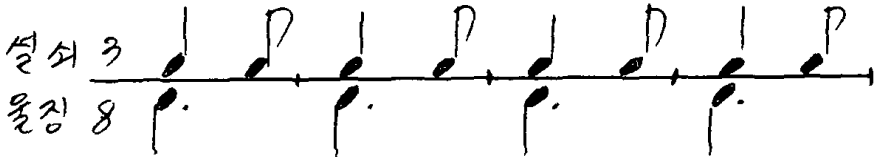
명칭	20-1 모듬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발등작 없음 (제자리)
장단	<중판> 설쇠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양손에 바람과 신칼을 들고 앉아서 양팔을 앞으로 들고 제자리에서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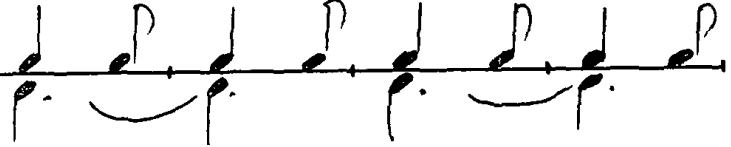
명칭	20-2 모듬 춤사위	
춤 사 위		
발 동 작		
장 단	< 자진연물 > 설쇠 3 물장 8 	
춤 사위 설명	정면으로 두 손을 앞으로 하고 일어선 다음 왼팔을 사선뒤로 방향을 틀고 팔을 옆으로 돌려 몸 방향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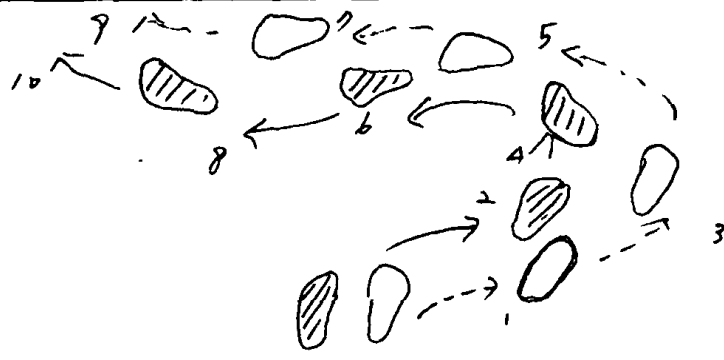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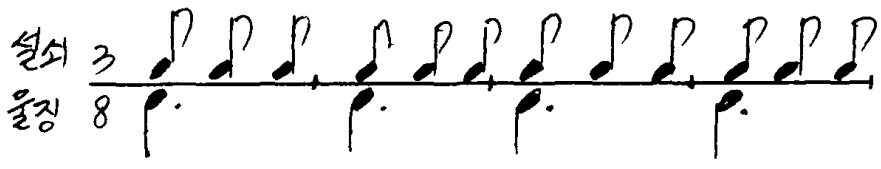
명칭	21. 원그리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여물> 설외 3 물짐 8 
춤사위 설명	양팔을 가슴 넓이만큼 옆으로 벌려서 정면 방향으로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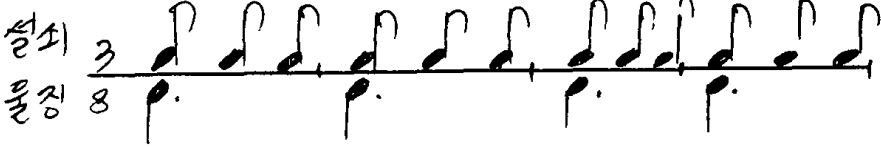
명칭	22. 옆으로 뿌려 어깨에 메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중판> 설외 3 울림 8 
춤사위 설명	일어 서서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고 양손의 바랑을 치고 옆으로 벌리면서 뒤로 나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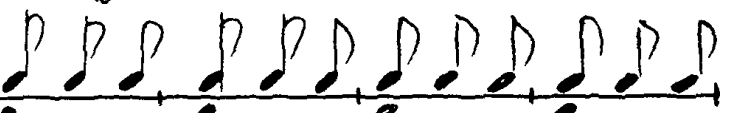
명칭	23. 단 쌀기와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연불> 결외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양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바랑을 치면서 큰 원을 돌아 달팽이 모양으로 꼭지점 안으로 들어와 제자리에서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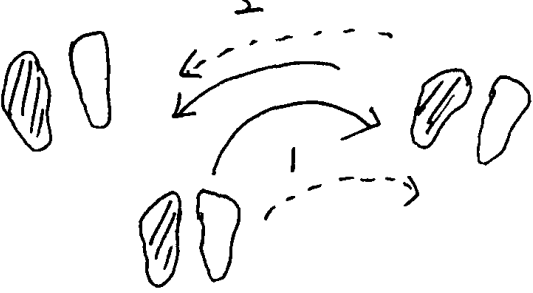
명칭	24. 어르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발동작 없음 (제자리)	
장단	<중판> 설쇠 3 물짐 8 	
춤사위 설명	자리에 오른발은 세우고, 왼발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바랑을 던져 점을 친 다음 신칼 두 개를 한데 모아 오른쪽은 칼을 오른쪽은 지전을 쥐고 오른손을 돌리면서 몸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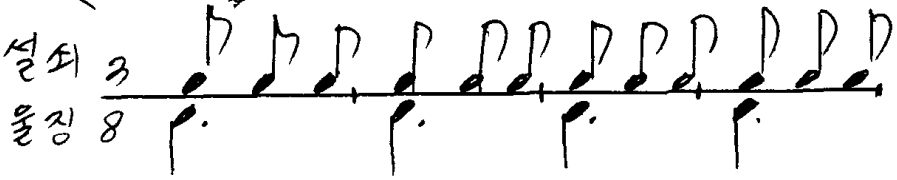
명칭	25. 청하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 늦은 연물 > 설쇠 3 율징 8 
춤사위 설명	조심스럽게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서 엉기와 문기를 잘들어 흐들어지지 않게 하여 뒷걸음으로 나가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체 기를 밖으로 하여 한바퀴 돌아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간다.

명칭	27. 앞 춤사위
춤 사 위	
발 동 작	
장 단	< 자진여물 > 설외 3 울징 8 
춤 사위 설 명	오른쪽 사선으로 몸은 정면으로 하고 발을 옆으로 딛으면서 지그재그 형식을 하고 양손은 따로따로 오른쪽으로 갈때는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밑으로 내려 오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이 몸앞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좌측방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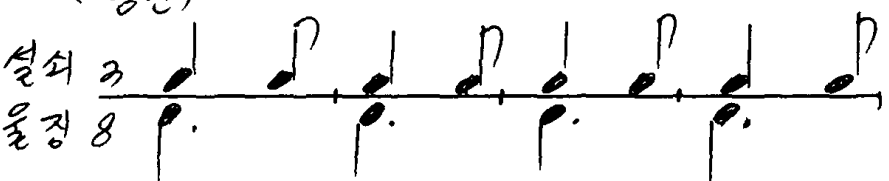
명칭	28. 앞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 연불> 설쇠 3 물징 8 
춤사위 설명	몸은 서쪽 방향으로 하고, 발의 디딤은 옆으로 하여 정면으로 나아 가면서 팔은 몸 앞으로 들어 올려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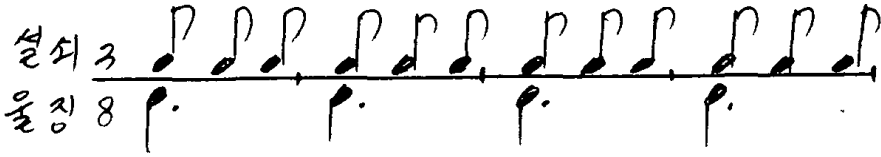
명칭	30. 감장도는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 연동> 설외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제자리에서 왼발을 축으로 하여 댄돌고, 양팔은 영기 문기가 위로 향하게 세워 들고 빠른 속도로 댄돈다.

명칭	31. 도량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연불> 설쇠 3 물징 8 
춤사위설명	토끼 뒀을 뛰듯이 두 발을 모아서 오른쪽 먼저 안쪽으로 뛰다가 이때 두 팔은 몸이 뛰어 위에 있을때 위로 들었다 두발이 오른쪽에 착지하면 두팔은 몸의 왼쪽으로 동시에 내리고 두발이 왼쪽으로 뛰어 착지하면 두팔도 오른쪽으로 동시에 내린다.

명칭	32. 뿌리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발동작 없음 (제자리)
장단	<자진여물> 설쇠 3 울징 8 
춤사위 설명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칼을 한쪽씩 따로따로 뿌리고 양쪽을 동시에 밖으로 뿌리거나 안으로 뿌리거나 한다음 신칼을 던져 점을 친다.

명칭	33. 어르기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발동작 없음 (제자리)	
장단	<중판> 설외 3  울징 8 	
춤사위 설명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 손에 요랑을 들고 좌우로 밀면서 흔든다.	

명칭	34. 손가락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발동작 없음 (제자리)
장단	< 중판 > 설외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앉은 자세로 양발을 어깨높이로 들어 손목을 돌리면서 추는 손목춤이다.

명칭	35. 술병 들고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장단	<자진연타> 설쇠 3 울징 8 
춤사위 설명	시왕 맞이가 끝난직후 큰신을 따라온 잡신들에게 인정하는 술병을 들고 추는 춤으로 오른쪽 무릎은 꿇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두손으로 술병을 들고 위로들었다 아래로 던진다.

명칭	36. 낙하설이 띄운 춤사위	
춤사위		
발동작	일정한 발동작 없음.	
장단	<u>장단 없음</u>	
춤사위 설명	백설기 시루떡을 하늘에 던졌다가 받고 또는 서로 주고받는 춤으로 일정한 발동작은 없고 장단이 없으며 시왕 맞이를 청한다음역가를 올리는 춤이다.	

Ⅶ 結 論

지금까지 본 논문은 제주도의 굿에 나타난 춤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굿춤은 세습무와 봉신무와 같은 신방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주도 굿만이 갖는 고유한 춤의 양식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이다”는 가설을 확인 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 굿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주도 굿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여섯 가지 분류에 따라 볼 수 있는데, 툽과의례에 따른 것으로서 불도맞이, 귀양풀이, 시왕맞이, 요왕맞이, 계절의례에 따라 문전비넙, 문전철갈이, 멍감, 산신멍감, 불뚫제, 예축의례로서 칠성제, 치병의례로서 닛들임, 푸다시, 두틴굿, 영감놀이, 칠성세남, 생산의례로서 요왕맞이, 멍감풀이, 산신놀이, 거무영청굿, 그리고 건축의례로서 성주풀이가 있었다. 둘째로는 굿의 무구와 복복에 관한 것인데, 무구에는 신칼, 산판, 요랑, 바랑, 감상기, 영기문기가 사용되었으며, 무복에는 관디차림, 군복차림, 두루마이 차림, 평복차림, 도포차림, 그리고 특수복 차림이 있었다. 그리고 제의적 절차에는 초감제, 초신맞이, 초상제, 추물공연, 석살림, 보세감상,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본풀이, 초공맞이, 이공본풀이, 이공맞이, 삼공본풀이, 젓상제, 시왕맞이, 세경본풀이, 삼공맞이, 세경놀이문전본풀이, 본향다리, 각도비넙, 말놀이 그리고 도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 굿의 예술적 형식에서는 세 가지를 보았는데, 먼저 무악으로서 장구, 징(울징), 북(울북), 설쇠(울쇠)의 사용과 무악리듬 장단으로 낮은 언물, 중단, 잣은 언물이 사용되었고, 둘째로는 춤의 형태로서 신칼들고 추는 춤, 낙하실이 띄들고 추는 춤, 감상기들고 추는 춤, 술잔들고 추는 춤, 시왕멍감영기들고 추는 춤, 향로들고 추는 춤, 할마니 다리들고 추는 춤, 철죽대 들고 추는 춤, 가지랭이(바라)들고 추는 춤, 군웅치마 걸치고 추는 춤, 물그릇들고 추는 춤, 도끼들고 추는 춤, 따비(농기구)들고 추는 춤, 작대기 들고 추는 춤, 광관새 들고 추는 춤, 삼판들고 추는 춤, 나부다리들고 추는 춤, 술병들고 추는 춤, 신칼과쌀을 들고 추는 춤, 가면쓰고 햇불들고 추는 춤, 동백꽃을 들고 추는 춤, 악심꽃을 들고 추는 춤, 아기업고 추는 춤, 그리고 식칼들고 추는 춤이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 굿춤이 갖는 특징으로서 단순성, 연극성, 그리고 주술적 상징성이 보임을 살폈다.

제주도 굿춤의 구성에서는 초감제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춤을 구성하는 것들은 배포도업침, 날과 국 섬김, 집안 년유 닦음, 군문 돌아보고, 초군문

에 인정검, 군문열림, 분부사됨, 부정개고, 새를 다리고, 신청괘, 팔만대신경, 정대우, 배신키고, 방광키고, 새나옴, 추물공언, 도울림, 역가를 바치고, 낙하실이 놀림, 시왕사자 본풀이, 액을 막고, 차사영맞이, 영혼차사 본풀이, 시왕도진 등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사위들을 구체적으로 사진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동작, 몸동작 그리고 이에 따른 장단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볼때, 제주도는 대륙의 굿춤과 비교해 볼때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심방의 특성에 따라 제주도에 나타난 굿춤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전수되며 발전해가고 있다 하겠다.

参 考 文 獻

- 김태곤(1991), 「한국 민속 연구」, 서울 : 집문당
- 문예진흥원(1980), 「무악」, 서울 : 한국 문화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브리टे니커(1987), 「뿌리깊은 나무」, 서울 : 한국브리टे니커
- 김수익(1982), 「제주도 무흔굿」 「공간」 10월호, 서울 : 공간사
- 현용준 이부영(1985), 「제주도 무흔굿」, 서울 : 열화당
-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 집문당
- (1980),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서울 : 新丘文化社
- 문화재관리국(1987), 「무무」, 서울 : 문화재연구소
- (1990), 「제주도 무속」, 서울 : 문화재연구소
- (1986), 「한국 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제주도편), 서울 : 문화재 연구소
- 김인회(1982),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 서울 : 고대 민속 문화 연구소
- 제주도(1986), 「제주도 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제주도
- 송수남외 2명(1985), 「무용원론」, 서울 :

이창훈(1991), 「제주도 칠머리 당굿의 춤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청구 논문

장사훈(1984), 「한국무용개론」, 서울 : 대광문화사

정병호(1989), 「무속예능의 지역적 기능과 특성」, 「창론」, 서울 : 중대
예술연구소

유동식(1989),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 연대출판부

김재현(1989), 「춤과 삶의 문화」, 서울 : 민음사

이상일(1982), 「굿과 놀이」, 서울 : 문음사

황루시(1988), 「한국인의 굿과 마당」, 서울 : 문음사

ABSTRACT

A study on the dance in Jejudo kut

Won Phil Ye

Department of Dancing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is the dance in Jejudo kut. Therefore,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has decided that "the dance of Jejudo kut has been developed in a peculiar style of dance, by a shaman who was called simbang."

First of all, the outline of Jejudo kut are as follows. The sort of Jejudo kut was divided into six pattern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It is of passing ceremony, season ceremony, producing ceremony, curing ceremony, and building ceremony. Secondly, it is about the instrument and clothing which Simbang is using. Its instruments are that like Jing, Jang gu, Buck, Seol soi. Its clothings are that like kwoandi style, military uniform style, durumaki style, civilian clothes style, and rope style.

Jejudo kut has the musical instrument and dance in artistic aspect. The characteristics of its dance are simplicity, dramatics, and symbolism.

In the plot of Jejudo kut, this research has examined it through Chogam ceremony. According to its contents, its plots were divided into twenty four.

Lastly, On the base of the photo materials, this research went through dancing forms in Jejudo kut.

Accordingly, even if jejudo kut didn't differ another region's, but its dance has been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developing by simbang living in Jejudo. It have been an influence on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at the present as well as the past. And it will contributes to develop the korean folk dances.